

DP운항사 NCS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김이완* · 이진우** · 이창희** · 예병덕****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해양대학교

A Basic Study on NCS Development for DP Operator

E-Wan Kim* · Jin-Woo Lee** · Chang-Hee Lee** · Byeong-Deok Yea****

*, **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DP운항사, DP운항사 자격요건, DP운항사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Key Words :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DPO qualifications, DPO certificat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1. 개요 및 연구목적

많은 국내 해기사들이 높은 보수, 짧은 승선기간,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DP운항사, HSE관리자, 고전압기사 등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침체, 로컬컨텐츠 강화 등으로 국내 인력이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DP운항사 직무에 대한 직무능력 요건 및 경력개발 경로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존 항해사들이 DP운항사로 직업을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항해사들이 DP운항사로 직업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직무능력 요건을 분석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외선박회사에 DP운항사로 취업하기 위한 절차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STCW협약 및 해양플랜트 산업계 지침에서 요구하는 DP운항사의 직무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DP운항사의 직무에 대한 직무능력표준 및 경력개발경로를 개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DP운항사의 직무는 6가지의 능력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와 IMCA, NI 등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침안에 대한 숙지 등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친숙화가 필요하다. 둘째, DP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DP시스템에 대한 각종 시운전 및 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해양플랜트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직 중 발생하는 각종 작업에 대한 위험식별 및 위험성평가 능력, 비상상황 발생 시 맡은 역할에 대한 수행능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영어능력 수준 또는 의사소통능력을 기준으로 당직 중 발생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회사/해양플랜트/작업자 간의 연락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해양플랜트 고유의 위험작업에 대한 이해 및 감독 능력을 갖춰야 한다.

4. 결론

DP운항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직무능력과 각 직무 능력에 대한 능력단위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NCS 기반의 DP운항사 양성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론 및 시뮬레이션, 안전교육 등 집체교육은 국내 선원 양성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승선실습은 국내의 DP선박을 보유한 선박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기관·선박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경로를 확보하고, 명확한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NI인증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국내 DP운항사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DP선박에 특화된 선교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인증을 국내화하고, 국내화된 교육과정을 다시 해외로 역수출할 수 있는 교육행정인력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 First Author : ewkim@seaman.or.kr, 051-620-5416

† Corresponding Author : byea@kmoa.ac.kr, 051-410-4243